

사랑의열매

2026
03



김선우 작가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열매〉독자들이 정성껏 눌러쓴 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웃에게 보내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다정한 편지들을 소개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버텨야 하는
하루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하루를 견딜 힘이 됩니다.

-차수정

오늘은 흐려도 내일을 맑을 거란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숨 막힐 듯 자치고 쓰러질 듯 힘겨워도 가슴속 깊이
간직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강예숙

마음은 보이기 앞서지만,
서로는 향해 버린 순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다리가 된다.

-양서윤

열매 발견

일상에서 찾은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독자들이 일상 곳곳에서 발견한 사랑의열매 모양.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특별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을 공개합니다.



함께 해요! 함께 가요!

키가 작은 사람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가 다른 버스 손잡이의 모양을 보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상징하는 사랑의열매랑 많은 부분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중훈

나눠 먹으며 행복 느껴요

열매 3개가 하나로 연결된 사랑의열매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의미인 것처럼, 도넛 3개를 나눠 먹으며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잘 심어줄 것 같았습니다. -황경연



장난감 사이에서 멋진 열매

장난감을 정리하다 발견했어요. 서로 다른 장난감이 모여 하나의 열매가 된 모양이 기부라는 가치를 위해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사랑의열매를 만든 것과 비슷하다고 느껴요.

-홍상문

참여방법

일상 속 물건에서 사랑의열매 모양을 발견하면 사진 찍기
오른쪽 QR코드를 스캔 후 사진을 올리면 참여 완료
참여기간 매달 20일까지 **당첨자** 경품 편의점 상품권 (3명)

*선정된 사진은 〈사랑의열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기

사랑의열매

발행인 윤여준

발행일 2026년 3월 / 통권 227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 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홍보미디어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35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주)한경매거진앤북 02-360-481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행복을 더하는 기부

04 열매인(人)터뷰

공동체 품격을 높이는 나눔의 가교
사랑의열매 제12대 윤여준 신임 회장

08 어쩌다 찰칵

우연히 포착된
그날의 풍경

10 표지 이야기

멸종된 도도새에 숨을 불어넣어
희망을 틔우는 김선우 작가

14 열매로 가는 길

라면 기부한 수(SOO)태권도
송도국제관 원생들



COVER

일러스트 명하나



김선우 작가





기부로 바꾸는 내일

- 16 **모두의 나눔**
빛나는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여성들
- 22 **함께 만든 변화**
멘토링 통해 여성 청소년의
자립 지원 체계 구축하는
'JUMP ON 멘토링'
- 26 **착한기업**
이웃의 일상에 변화를 더하는 에너지,
한국중부발전(주)세종발전본부



내일을 만드는 온기

- 30 **나눔의 진심**
인천 1호 아너 오피러스 회원
(주)힐링웨이 김종현 대표
- 34 **빛나는 나눔**
예천군 가족센터 주정하 센터장과
행복한지보노인복지센터 김순덕 대표
- 36 **가치 나눔**
파르나스호텔 '희망의 크리스마스 트리'
- 38 **착한 리뷰**
적은 혈액으로 정확한 측정
에스디바이오센서 '스탠다드 멘토'
- 40 **나의 착한펫**
조정식 아나운서의 반려견 아봉이

온기로 전하는 희망

- 42 **찾아가게**
무지갯빛 봄날 영동
- 48 **열매 소식**
희망2026나눔캠페인 폐막식
- 50 **열매 리즈**
열매모아 리워드 굿즈
- 52 **책책클럽**
발달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책

희망을 밝히는 소식

- 5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 56 **나눔명문기업**
- 58 **전국 지회 뉴스**
- 68 **독자 이벤트**

공동체 품격을 높이는 나눔의 가고, 사랑의열매 제12대 윤여준 신임 회장

“기부자의 신뢰와 이웃의 희망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나눔의 상징, 사랑의열매가 제12대 윤여준 회장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평생 공공의 가치를 세우는 데 헌신해온 윤 회장은 ‘사(私)보다 공(公)을 앞세우는 자세’로 국민의 정성을 전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동체 품격을 높이며 사랑의열매가 그러나갈 따뜻한 내일을 들여다본다. 대담 및 정리 편집부 사진 사랑의열매

공공선(公共善)을 향한 새로운 여정

입춘의 기운이 완연하던 지난 2월 5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 대강당에서는 제12대 윤여준 회장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시종일관 진중하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은 윤 회장은 취임 첫 소감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임직원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그는 1960년대 신문사 기자로 사회 생활의 첫발을 댄 이래, 공보와 외교 등 국정의 주요 현장에서 우리 사회의 명암을 직접 경험해왔다. 이제 그가 쌓아온 오랜 경륜은 민간 복지의 중추인 사랑의열매를 향하고 있다.

“대한민국 나눔의 중심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열매를 이끌어가게 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영광이며,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장에서 기부자의 마음을 설득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는 임직원의 열기를 마주하니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이곳에 쏟아부어야겠다는 사명감이 듭니다.”

윤 회장의 취임은 단순히 조직의 수장이 바뀌는 일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는 과거 언론인으로서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밀하게 살피고, 공직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틀을 고민한 모든 과정이 결국 ‘건강한 공동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에 취임 현장에서도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기부금의 숫자라는 결과보다 그 뒤에 담긴 국민의 진심 어린 과정을 먼저 헤아릴 것을 강조했다. 그는 “사랑의열매의 신뢰는 제도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임직원 개개인이 곧 사랑의열매의 얼굴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연대의 나눔 철학

윤여준 회장이 평생을 두고 강조해온 가치는 공공성이다. 그는 저서와 강연 등을 통해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대우하는 방식이 곧 그 사회의 품격을 결

제12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윤여준 회장 취임식

● 일시: 2026년 2월 5일(목) 15시 장소: 사랑의열매회관 대강당  사랑의열매



정한다고 말해왔다. 사랑의열매 회장으로서 그가 정의하는 나눔 역시 이 연장선에 있다. 그에게 나눔은 여유 있는 자가 행하는 단순한 시혜를 넘어 시민이 서로를 남이 아닌 '우리'로 인식하게 만드는 실천적 행위다.

“나눔은 경제적 결핍을 메우는 일을 넘어 서로를 우리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사회적 불신을 걷어내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눔의 본질은 단순히 자선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화(共和)의 정신을 일깨우는 것이야말로 사랑

의열매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러한 철학의 뿌리에는 사(私)보다 공(公)을 앞세우는 자세가 깊이 박혀 있다. 나눔은 개인의 선택적 선의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인식이다. 윤 회장은 나눔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사회의 품격도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늘은 내가 돕는 위치에 있지만, 내일은 누구나 도움을 받는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나눔은 타인을 돕는 것을 넘어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나눔이 특별한 날에만 행해지는



취임을 축하하는 내빈들과 기념 촬영 중인 윤여준 신임 회장

“서로를 남이 아닌 우리로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나눔이 시작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연대를 통해 모두가 함께 걷는 내일을 열겠습니다.”

- 제12대 사랑의열매 윤여준 회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심에 둔 자연스러운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습도, 나눔의 방식도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사랑의열매가 공동체 정신을 일깨우는 중심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눔이 일상이 될 때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연대가 흐르는 세상이 된다는 확신이다. 기부금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 이것이 윤 회장이 사랑의열매와 함께 그려나갈 가장 중요한 나눔의 지도다.

신뢰 기반의 스마트 나눔 플랫폼

윤 회장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랑의열매

가 나아가야 할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는 단연 신뢰다. 평생 '진실보다 강력한 소통은 없다'는 철칙을 지켜온 그는 투명한 운영과 책임 있는 배분을 통해 사랑의열매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부자가 성금의 쓰임새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의 문턱을 낮추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존엄을 지켜주는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시대가 변하면 나눔의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사랑의열매가 복지사각지대를 더욱 세밀하게 살피는 스마트 나눔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혁신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닿도록 전달 체계의 품질을 높이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2025년 사랑의열매는 9,864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모금액을 기록했다. 이 숫자가 단순한 기록이 아닌 기부자를 설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조율한 임직원의 땀방울임을 잘 알기에 배분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윤 회장은 가정 밖 청소년과 고령 장애인 가구 등 기존 제도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디지털 및 AI 기술 발전을 모금과 조직 운영 전반에 적극 활용해 미래 세대까지 포용하는 지속 가능한 나



사랑의열매 주요 인사들과 축하 세리머니를 나누는 윤여준 신임 회장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윤여준 신임 회장 취임식

눔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일이 사람을 소모시키지 않고, 조직이 사람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통해 임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희망의 싹을 틔우는 우리의 손길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윤 회장은 전국의 기부자와 봉사자, 그리고 파트너 기관들을 향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나눔을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돌아나는 새싹’에 비유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네는 작은 손길들이 모여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고, 우리 사회의 척박한 곳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나눔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뿌리입니다.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

중한 정성과 믿음을 가장 정직하고 투명하게 전달하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나눔의 가치가 일상이 되는 사회,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걷는 내일을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따뜻한 여정에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윤여준 회장의 취임은 사랑의열매가 단순한 모금 기관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문화 운동의 주체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내다보며 준비하겠다는 그의 다짐처럼 ‘진심을 다한 소통’과 ‘공공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첫걸음을 뗀 행보가 우리 사회 곳곳에 어떤 온기를 전해줄지 기대된다. 기부자의 신뢰와 이웃의 희망을 잇는 이 견고한 가교 위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진 대한민국 공동체의 내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

우연히 포착된 그날의 풍경

사랑의열매에서 매달 진행되는 행사나 전달식 또는 <사랑의열매> 취재 현장 등에서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종종 펼쳐진다. 때로는 우연히 포착된 장면이 더 큰 감동을 주기도 한다. 그 찰나에 스며든 행복한 기록을 고스란히 담아 한데 모았다.

글 이선희 사진 김기남, 사랑의열매

▶ 지난해 12월 희망2026나눔캠페인과 법정 기부 주간을 맞아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기부 주간 홍보 캠페인'이 열렸다. 광주 사랑의열매 직원들과 열매동이가 직접 서구민을 맞이하며 사랑의열매 배지를 달아주고, 희망나눔캠페인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며 기부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 '기부 주간 홍보 캠페인'에서 열매동이로 활약한 광주 사랑의열매 직원들. 무거운 탈을 쓰고 온종일 행사장을 누빈 탓에 행사가 끝난 후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나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한 자부심이 얼굴 가득 배어 있다.

▶ 지난 1월 17일 'BNK 사회 공헌의 날' 행사가 열렸다. BNK경남은행 김태한 은행장과 임직원, 경남 사랑의열매 강기철 회장과 임직원 등 600여 명이 BNK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식료품 18종을 복 꾸러미로 포장했다. 이날 만든 복 꾸러미 상자 5,150개는 경남 18개 시군의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 인천광역시 수(SO)태권도 송도국제관에서 촬영하던 중 남자원생들이 꼭 찍고 싶다며 야심 차게 인간 탑 쌓기에 도전했다. 비명과 웃음이 뒤섞여 소란스러웠지만, 아이들은 1단, 2단 차곡차곡 쌓아올리며 진지하게 임했다.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호흡을 맞추는 이 순간이 소중한 기록으로 남았다.



멸종된도도새에
숨을 불어넣어 희망을
띄우는 김선우작가

“예술은 마음을 건네는 일, 나눔은 그 마음이 맺는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동료 작가 20인과 <열매: 마음이 모여 맺힌 것> 전시를 열며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동참한 도도새 작가 김선우, 스타 작가를 넘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온 그가 기부의 여정에서 발견한
‘예술의 진짜 힘’을 전한다. 글 강은진 사진 이승재, 사랑의열매

캔버스 위에 열린 나눔의 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열기는 문화 예술계에서도 뜨겁게 피어올랐다. 사랑의열매와 프린트베이커리가 체결한 ‘아트 포 호프(Art for Hope)’ 프로젝트의 첫 결실인 <열매: 마음이 모여 맺힌 것> 전시가 그 무대였다. 2025년 12월, 인사아트센터를 채운 작가 20인과 컬렉터 19인의 작품은 전시와 굿즈, 경매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며 관객에게 자연스러운 나눔의 경험을 선사했다. 그 중심에는 도도새 작가로 잘 알려진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김선우 작가가 있었다. 그는 이번 전시를 위해 한정판 브로치와 토분 패키지를 출시하며 판매 수익금을 기탁하는 등 예술을 통해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섰다.

“작년 북촌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 나눔 전시의 기억이 참 소중했어요. 이번에도 제안하자마자 다들 흔쾌히 응해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죠.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술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나누는 과정은 기부와는 또 다른 충만감을 안겨줍니다. 작품이 누군가의 일상에 머물며 쌓인 기억이 기부라는 실천으로 다시 환원되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김선우 작가는 오래전부터 SNS 캠페인을 통해 팬들과 함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성금을 모으고,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한 경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등 문화 예술계의 나눔 트렌드를 주도해온 인물이다. 단순히 작품을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발한 기획력으로 대중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의 행보는 ‘예술이 결국 마음을 건네는 일’이라는 전시의 본질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1 <열매: 마음이 모여 맺힌 것>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 김선우 작가는 이번 전시에 신작 두 점을 출품했다.

2 전시 오프닝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선우 작가



“도도새가 잃어버린
날개를 다시 찾듯,
나눔은 우리 안의
잊힌 가능성을
깨우는 일입니다.”

- 김선우 작가

1톤 트럭으로 수거한 꿈, 1억 기적이 되다

우리나라 현대미술계에서 김선우 작가만큼 대중의 압도적 주목을 받아온 인물은 드물다. 2014년, 26세 나이에 가나아트센터 최연소 전시 작가로 이름을 올리며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불과 2년여 만에 작품가가 20배 이상 뛰어오르는 등 미술계의 ‘아이돌’로 부상했다. 현재도 글로벌 브랜드와 대기업이 앞다투어 찾는 협업 1순위 작가지만, 화려한 이력 이면에는 버려진 캔버스를 줍던 무명 시절의 뜨거운 집념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

“전업 작가가 된 후 재료비와 작업실 월세를 벌기 위해 영상 편집부터 삽화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미대 졸업 전시 시즌이면 대학을 돌며 학생들이 버린 캔버스 틀을 빌린 1톤 트럭에 수거해 다시 천을 씌우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죠.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작품들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힘들어도 재미있다면 이건 내 길이다’라는 확신만큼은 그 고단함 속에서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림에도 식을 줄 모르던 작업에 대한 열망은 결국 나눔이라는 더 큰 가치와 맞닿았다. 2021년 자선 경매에 출품한 작품 ‘세이프 더 월드(Save the World)’가 1억 원에 낙찰되어 세계자연기금(WWF)에 전액 기부된 일은 그에게 작가로서 존재 이유를 새롭게 정의해주었다.

“무명 시절엔 저 역시 기부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경매를 통해 제 돈이 아니라 제 그림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걸 깨달았죠. 그 순간, 작업의 의미와 용기가 배로 커졌습니다. 혼자 그리던 그림이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결핍의 시간을 통과하며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진 그는 이제 그 근육으로 더 큰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신의 재능이 사회적 가치로 환원되는 과정을 목격한 경험은 그를 단순한 성공을 넘어 나눔문화를 이끄는 나눔리더로 성장하게 만든 든든한 자양분이 되었다.

다시 날 준비 되셨나요?

새봄의 문을 활짝 여는 3월, 〈사랑의열매〉 표지를 환하게 장식한 주인공은 김선우 작가와 그의 페르소나 도도새다. 수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그지만, 이번 표지 모델 제안만큼은 어느 때보다 영광스러웠다고 고백한다.

“제안을 받자마자 고민 없이 수락했어요. 사랑의열매 소식지는 나눔에 동참하며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선한 분들이 읽는 책이잖아요. 그 따뜻한 시선들과 제



혜화동 작업실에서 만난 김선우 작가. 그는 매일 오전 5시에 출근해 12시간 이상 작업하는 성실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술 공무원'이라 불릴 정도다.

작품이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한없이 감사하고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표지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도도새는 마다가스카르 인근 섬에서 천적 없는 환경에 안주하다가 나는 법을 잊고 멸종된 비운의 새다. 작가는 이 새를 통해 역설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고 꿈꾸는 대로 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는 절망의 문턱에 선 우리 이웃들에게 건네는 가장 간절한 응원이기도 하다.

“제 그림 속 도도새는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존재지

만, 그 안에는 꿈과 가능성에 대한 깊은 공명이 담겨 있어요. 삶의 막막한 터널을 지나는 청년들이 제 무명 시절 이야기에서 작은 위로라도 얻길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의 멈춰 있던 날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성공담 대신 응원을 택한 그의 고백은 나눔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일깨워준다. 캔버스 밖으로 걸어 나와 우리 사회의 온도를 높이고 있는 도도새의 행보가, 그가 맺을 다음 ‘열매’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



라면 기부한수(SOO)태권도 송도국제관 원생들 “우리의 라면이 사랑이라면”

지난 1월 12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수(SOO)태권도 송도국제관(이하 수태권도)에 아주 특별한 트리가 세워졌다. 원생들이 하나둘 모은 라면 1,670개로 큰 트리를 만든 것. 라면을 모두 기부해 사랑의열매를 통해 인천 연수구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글 이선희 사진 김기남, 수(SOO)태권도 송도국제관



“2년째 용돈으로 라면을 사서 기부해 오래 기억에 남아요.” - 김도율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 정한결

“나눔을 한 저도 기분이 좋고, 받은 사람도 기쁘고, 서로 행복해지는 일인 것 같아요.” - 최희원

“제가 좋아하는 라면을 기부해서 기뻐요. 나눔은 나누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일이에요.” - 남건우

“라면 한 봉지로도 다른 사람도 도움 수 있어 마음이 따뜻해요.” - 김한결

“용돈을 모아 라면을 기부할 수 있었어요. 따뜻한 진심이 전달되었으면 해요.” - 이세민



수태권도 박효식관장



● 인천 연수구 수태권도는 운동 기술을 넘어 올바른 예의와 인성을 가르치는 데 많은 공을 들인다. 특히 자체 제작한 콘텐츠로 나눔 교육을 실시하며 아이들이 나눔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태권도는 기본, 인성은 필수

● 3~4년 전, 수태권도 박효식 관장은 다른 지점 총관장님의 권유로 아이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라면 기부를 떠올렸다. 취약 계층에게 실용적인 라면을 기부 품목으로 정해 아이들이 자신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한 끼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눔의 행복을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라면으로 나눔의 행복을



● 2025년 12월 한 달간 모인 라면은 총 1,670개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한 2,000개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전체 원생 170여 명 중 95%가 기부에

참여해 높은 동참률을 기록했다. 원생 대다수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어느 해보다 특별한 나눔으로 기록됐다.



● 2023년 연말, 첫 라면 기부가 시작됐다. 유아반부터 성인반까지 원생들이 저마다 정성을 담아 가져온 라면이 하나둘 쌓여 첫해에 1,000여 개를 기록했다. 이렇게 모인 라면을 차곡 차곡 쌓아 올리자 근사한 라면 트리가 완성됐다. 이듬해에는 참여 열기가 더욱 뜨거워져 1,200~1,300개가 모이는 등 아이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

함께해서 빛난 1,670개의 진심

“라면 트리는 아이들이 정성을 보태 직접 쌓아 올린 ‘마음의 온도’ 그 자체입니다. 차곡차곡 모인 1,670개의 라면이 우리 이웃들에게는 든든한 응원이고, 아이들에게는 나눔의 온기를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나눔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에요.” -이한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트리 완성

“이웃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어서 부듯해요.” -이리나

“큰 나눔은 아니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허예원



“부족한 용돈을 아껴 라면 두 봉지를 샀어요. 이웃과 행복을 함께 누리고 싶어요.” -인두리



빛나는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여성들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홀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현실과 맞닥뜨린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여성들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의 일상을 지키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글이선희 사진각나눔 기관 일러스트명하나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내일(job)을 더 새롭게



● 2024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여성 한부모 경제활동 실태에 따르면 여성 한부모의 취업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고용 안정성은 매우 낮았다. 아이 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에 동방사회복지회는 신한은행의 후원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여성 한부모 취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3년간 진행했다. 여성 한부모의 취업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을 다지며 사회적 역할을 넓히도록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했다. 직무 역량 강화와 맞춤형 훈련, 인턴십 연계는 물론 재무관리와 자산 구조 개선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해 안정적 소득을 바탕으로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왔다.



동방사회복지회 최승희 간사



“신한은행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은 여성 한부모의 삶에 안정성과 지속성을 더해준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여성 한부모에게는 ‘사회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의미도 컸습니다. 단기적 생계 해결을 넘어 안정적 자립과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든든한 동반자적 지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2차년도 결과보고회에 함께한 참여자들과 관계자들
2 제과 제빵 인턴 실습 중인 참여자



위기 임신부와아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 시범 사업



1



2



280명 1·2차연도 미혼모 참여자 수

100% 입양을 결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모든 참여자가 양육을 결정

1 위기 임신부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인식 개선 캠페인

2 출산 이후 필요한 물품을 맞춤 지원

- 현재 미혼모 지원은 시설 입소와 서류 증명 중심의 경직된 운영 탓에 사각지대에 놓인 임신 초기 여성과 비임소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공급자 위주의 신청주의 원칙에 사회적 낙인까지 더해져 실제로 도움이 가장 절실한 위기 임신부들이 지원 체계에서 소외당하는 목적이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여성인권동감은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3년째 미혼모와 아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신부터 양육 결정 이후까지 임신과 출산 과정 전반에 걸쳐 밀착된 개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설에서 재가로 전환 시 공백이 없도록 통합 상담과 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거점 센터를 컨트롤타워로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자립을 돕고 있다.

사단법인 여성인권동감 최미라 대표



Q 사업을 진행하며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뭔가요?

현실적으로 경제적 지원도 매우 필요하지만, 심리적 부분도 중요합니다. 미혼모의 양육 결정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는 엄마와 아기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Q 이 사업의 의미에 대해서 전해주세요.

임신·출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초보 엄마가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고堂堂하게 사회에 나아갈 발판이 되어줍니다.

경력보유여성취업활성화지원프로그램 요양보호사·시니어케어컨버전스전문가양성



●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며 돌봄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력 단절과 연령 제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45세 이상 여성들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경제적 자립을 이룰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여성중앙회에서는 효성그룹의 후원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13년 동안 경력 보유 여성 취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과정, 실무와 행정을 겸비한 시니어케어 컨버전스 과정으로 나뉜다. 각 과정별로 '진입-심화-안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 취업과 고용 유지를 위해 참여자 선정 시 3단계 선발,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1인 평균 3회 이상 집중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했다. 수료 후 6개월까지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 관리 덕분에 실질적 취업 성과로 이어졌다.

사단법인 여성중앙회 임혜숙 총장



Q 이 사업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40~50대 여성은 자격증이 있어도 현장 경험 부족과 높은 연령 때문에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개인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돌봄 인력 기반을 확충하는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Q 효성그룹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력 보유 여성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회적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부터 이어온 협력으로 여성들의 재도전을 꾸준히 지지해 취업과 안정적 고용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인생 2막을 열고 지역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선순환의 기반이 되었다고 봅니다.



92.8%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산출
목표 대비 취업 달성률

100%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교육생 응시자 합격률

위기 임산부 및 한부모를 위한 생애 첫 가족 동지 인큐베이팅 사업



초보 엄마를 위한 부모 교육

●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들의 안전한 주거 지원과 기본 생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미혼모 생활 지원 시설 애란원에서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풍산그룹 류진 회장의 후원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맞춤형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생활 주방 가전 구입, 집 월세 등을 지원하는 '보금자리 주거 지원',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는 '재가 위기 임신·출산 의료 지원', 출산 및 양육 물품 지원부터 부모 교육 등 초보 엄마를 위한 '초기 양육 모 인큐베이팅 지원'이 이루어진다.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양육 결정과 실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애란원 김에빈 사회복지사

Q 사업명을 '동지 인큐베이팅'이라고 지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시설 보호와 지역사회 독립 사이 중간 보호 형태입니다.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인큐베이터에서 아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개별 독립 주거를 지원하고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자립 준비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인큐베이팅'이라는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Q 전국 최초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동

지 인큐베이팅의 주요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 위기 임산부 쉼터에 머무는 위기 임산부입니다. 2024년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마련한 위기 임산부 쉼터로 저희 기관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단순히 머무를 곳을 제공하는 보호 차원을 넘어 위기 임산부 삶의 변화와 자립을 이끌어내는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Q 사업 담당자로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면요?

첫째, 절대적 빈곤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들을 위한 주거 지원 및 기본 생계 지원입니다. 둘째,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아에 대한 의료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입니다. 셋째, 출산 후 초보 엄마를 위한 맞춤형 양육 지원입니다. 이처럼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Q 류진 회장님과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위기 임산부에 관심을 두고 도움을 주시는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인 풍산그룹 류진 회장님이 이번 사업도 지원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위기 임산부 및 위기 한부모 가정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생애첫가족동지인큐베이팅 사업을 후원한 류진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

● 2012년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풍산그룹 류진 회장은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가 회장을 맡은 한국경제인 협회는 2024년 보건복지부와 위기 임산부 양육 환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류 회장은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뿌리인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기 가정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지론을 펼치며 위기 임산부에 깊이 공감하고, 이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인큐베이팅 사업 역시 류진 회장의 후원으로 진행돼 위기 임산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탤다. ❀



91.7% 위기 임산부가 응답한 주요 어려움 1순위 '경제적 어려움'

(출처: 위기영아임산부 지원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방안, 초록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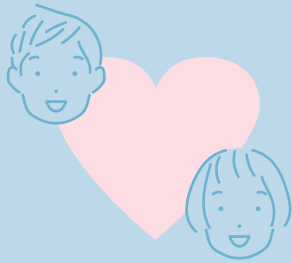
2



3

1 아너 회원인 풍산그룹 류진 회장 2 아기의 백일을 함께 축하하는 사업 참여자들 3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 복지 교육을 진행한다.

멘토링 통해 여성 청소년의
자립 지원 체계 구축하는
'JUMP ON 멘토링'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로 자립의 튼튼한 뿌리를 내립니다”

홀로서기엔 막막한 세상, 그 곁에 묻고 배울 ‘어른’이라는 이정표가 놓인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연결로 함께 자립을 준비하는 따뜻한 동행.
사단법인 점프의 'JUMP ON 멘토링'이다.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JUMP ON 멘토링 사전 교육 현장. 선발된 온샘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온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3기 온샘이 4기 온샘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조언, 응원 등을 전하는 브리치 세리머니 모습

‘물고 배울 어른’이 필요해

어른이 된다는 건 단지 나이만 먹는 일이 아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법이 정한 기준으로 성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계를 이어갈 직업을 찾고, 그 직업을 위해 어떤 공부와 준비가 필요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세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자리에 걸맞은 예절도 익혀야 한다. 우리는 이런 삶의 기술을 교과서보다 부모와 형제, 주변 어른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운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시설 보호 청소년들에게 자립은 훨씬 막막하게 다가온다. 지원금 같은 경제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묻고 답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전망이다. 자립은 혼자 남겨지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언과 응원 속에서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공부 습관을 기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탐색하고, 사회적 예절을 몸으로 익히는 경험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이런 현실 인식으로 시작된 사업이 ‘JUMP ON 멘토링’이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시설 보호 여성 청소년

들의 자립 과정에 공감하며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성금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경제적 지원에 관계 기반 멘토링을 더해 보다 건강하고 든든한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다.

관계의 힘으로 넘는 자립의 벽

2023년 시작된 JUMP ON 멘토링은 학습을 기반으로 진로 지원, 신체 활동, 문화 체험, 자립 준비로 구성된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시설 보호 여성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한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온별(청소년), 온샘(대학생 멘토), 온날(사회인 멘토)이 함께하는 ‘삼각 구조’에 있다. 이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으로 연결된다. 온샘은 온별의 가장 가까운 언니이자 선생님으로서 매주 4시간씩 학습을 지원한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 수업을 버거워하는 온별이 스스로 공부 습관을 잡도록 눈높이에 맞춰 세심하게 가이드한다. 이러한 정기적 만남은 온별에게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정서적 토대가 된다. 이들의 교류는 책상 밖에서도 이어진다. 주 1시간 신체 활동을 병행



3기 수료식 및 4기 발대식은 온별과 온샘 및 온날들이 주고받는 웃음과 격려, 고마움으로 서로 더욱 끈끈해지는 관계의 장이었다.



“낮을 가리고 말도 없던 제 온별 친구가 멘토링을 통해 3기 수료식 토크쇼 무대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니 제가 마치 무대에 선 것처럼 마음이 벅찼습니다.”

- 온샘 신예린



“직접 참여해보니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챙긴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 말이에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한 번씩 찾아가도 되는 ‘서울 사는 이모, 삼촌’이 되어주려고요.”

- 온날 사회인 멘토단 임주환·김미경 부부

하며 배드민턴이나 댄스 챌린지 등 역동적 활동을 함께 한다. 이 과정에서 쌓인 유대감은 온별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깊은 고민을 꺼내놓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여기에 맞짱 탐방, 진로 연관 장소 방문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이 더해지면 온별들의 시야는 더욱 넓어진다. 멘토링을 통해 온별은 실질적 자립 역량을 체득해간다. 막연했던 꿈을 구체적 로드맵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온샘의 일상을 공유하며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현실적 목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시설 안팎의 경계에서 홀로서기를 고민하던 청소년들에게 온샘은 닮고 싶은 롤 모델이자 사회로 나가는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있다.

멘토링으로 완성하는 자립생태계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JUMP ON 멘토링의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실질적 재정 관리 경험을 제공하는 장학금 지급 방식이다. 온별과 온샘 모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며, 특히 온별에게는 중학생 연 80만 원, 고등학생 연 120만 원의 용돈이 지원된다. 아이들은 스스로 작성한 사용 계획서에 따라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며 경제적 자립 역량을 몸소 체득한다. 여기에 사회인 멘토 온날의 참여는 사업의 전문성을 한층 높인다. 온샘이 가장 가까운 학습 동반자라면, 온날은 진로와 사회생활에 대한 현실적 조언을 건네는 길



행사장 한편을 채운 온별, 온샘, 온날들의 추억이 가득한 사진들



JUMP ON 멘토링 온생들의 단체 활동 모습

잡이다. 이들의 연대는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전국 8개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시설 청소년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월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3기 수료식 및 4기 발대식'은 이러한 연대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230여 명의 온별·온샘·온날이 함께한 가운데 활동 영상 상영과 토크쇼, 장학증서 수여가 이어졌고, 행사장 곳곳에서 참여자들의 웃음과 격려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이는 자립이 결코 '고립'이 아닌 '연결'을 통해 완성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 교육 소셜 벤처 사단법인 점프는 그간 축적해온 교육 나눔의 노하우를 JUMP ON 멘토링에 집약해왔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4년의 지원 기간을 넘어 청소년들이 언제든 돌아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러한 연결의 힘이 이어지는 한, 온별이 맞이할 내일은 두려운 홀로서기가 아닌, 희망의 함께서기로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 편’이라는 확신”

사단법인 점프 고수진 매니저

Q JUMP ON 멘토링 사업은 어떤 배경에서 기획했나요?

시설을 퇴소한 이후가 아니라, 시설에 있을 때부터 자립을 준비 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시설 보호 여성 청소년이 사회로 나가기 전,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강한 어른과 안정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점프 삼각 멘토링 모델을 기반으로 방 시혁 의장의 지원을 통해 이 친구들에게 더욱 집중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JUMP ON 멘토링입니다.

Q 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전국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다 보니 거리의 한계가 가장 컸습니다. 더 자주 만나고 싶어도 이동과 시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더 찾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기금과 사랑의열매 지원이 사업 현장에 어떤 실질적 도움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방 시혁 의장의 기금으로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큼니다. 아이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스스로 경제관념을 익히고 미래를 계획해보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지도와 문화 활동을 병행하는 다각적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랑의열매와 함께 하면서 전국 단위로 참여 시설을 확대해나갈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지역까지 프로그램을 확장하며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Q 멘토링을 통해 변화하는 아이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세요. 자신감이 없어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한 온별(멘티) 친구가 떠오릅니다. 대학생 멘토인 온샘과 매주 만나 공부하고 댄스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문화 체험 활동을 기획해 멘토를 이끌기도 했고, “나도 나중에 누군가의 멘토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이 사업이 추구하는 ‘성장의 선순환’을 확인할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Q JUMP ON 멘토링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자립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로 나가는 순간까지 지켜봐줄 관계가 필요합니다. 고3 졸업 이후까지 이어지는 연결망이 있어야 아이들이 이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내일까지 환하게 밝힙니다”

이웃의 일상에 변화를
더하는 에너지,
한국중부발전(주)세종발전본부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오늘도 힘차게 내일을 밝히는 기업이 있다.
이웃의 일상에 변화를 더하는 나눔명문기업, 한국중부발전(주)세종발전본부다.
지역사회와 동행하며 희망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이들의 행보가 세상을
한층 따뜻하게 한다. 글 강은진 사진 한국중부발전(주)세종발전본부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주)세종발전본부 전경. 세종시 약 11만 세대의 공동주택, 정부 청사 등에 난방열과 전기를 공급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ESG 경영을 실천해 2011년 탄소 중립 녹색경영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세종시 나눔명문기업 2호 탄생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환한 전등 불빛과 추운 겨울날 방 안을 포근하게 채우는 온기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세종특별자치시의 밤을 밝히고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 세종시의 심장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주)세종발전본부(이하 세종발전본부)다.

세종발전본부의 역할은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지역사회 이웃의 삶을 돌보는 나눔으로 이어질 때 그 가치는 한층 더 빛난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정표가 바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이다. 지난 2021년 3월, 세종발전본부는 세종시 기업 중 두 번째로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본격적인 나눔 행보를 시작했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기업이 참여하는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 프로그램이다. 세종발전본부는 가입 당시 1억 원의 성금을 약정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이후 희망나눔캠페인 성금을 비롯해 사업장 인근 주민



을 위한 생계비와 장학금 지원에 앞장섰다. 또한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아동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까지, 지역의 필요에 맞춘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4년 5월 나눔명문기업 정회원으로 승격된 세종발전본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세종발전본부가 생산하는 전기가 세종시 곳곳의 어둠을 몰아내듯, 세종 사랑의열매와 함께 펼쳐가고 있는 나눔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사회 곳곳의 보이지 않는 그들을 차분히 견어내고 있다.



1 세종 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 기간에 진행된 세종발전본부의 '노사 합동 희망나눔 차량 전달식' 2 임직원이 함께 한 한솔동 환경 개선 봉사 모습 3 사회 공헌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현충원 1묘소 1대극기 꽃기 및 수거

지역사회와 상생, 최우선 가치

세종발전본부의 사회 공헌 사업은 세종 사랑의 열매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와 협력해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 사업은 매년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다. 세종 사랑의 열매 지정 기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세종발전본부가 후원한 200만 원의 성금과 장군면에 위치한 업체의 절임 배추 600kg이 더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이웃이 되는 것은 세종발전본부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언제나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나눔으로 희망을 만드는 상생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한국중부발전(주) 김민수 세종발전본부장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세종발전본부. 사진은 '사랑의 온기나눔 집수리 사업' 후원 및 봉사 모습

져 지역 내 취약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 있다. 특히 김장에 사용하는 배추를 세종시 장군면 지역 업체에서 구입함으로써 이웃을 돕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돕는 방식의 변화에 공감하며 힘을 보탠 점도 눈길을 끈다. 세종시 한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획한 '미니푸드마켓'은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나눔 모델이다. 세종발전본부는 이 취지에 공감해 200만 원 상당의 과일 세트를 후원하며 행사에 동참했다.

복지 현장의 발이 되어주는 기동력 지원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올해 1월, 세종발전본부는 세종시청에서 '노사 합동 희망나눔 차량 전달식'을 갖고 이동에 불편을 겪는 이웃을 위해 4,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기부했다. 무엇보다 노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은 노사 합동 희망나눔이라는 점에서 임직원의 깊은 유대감과 공동의 책임 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생의 정신은 매년 연말 이어지는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기탁으로도 이어졌다. 세종발전본부 임직원은 이번 희망2026나눔 캠페인에도 참여해 십시일반 모은 2,12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온기가 됐다.

미래 밝히는 희망 에너지로

세종발전본부의 시선은 지역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더 넓은 지향점을 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종발전본부는 2023년 세종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밀착형 봉사 활동을 본격화했다. '온기나눔 꾸러미' 전달과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



1 세종발전본부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2 세종시 사회적 약자 가구에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온기나눔 꾸러미' 지원사업에 참여해 봉사 중인 세종발전본부 임직원들



을 위한 집수리 봉사가 그 대표적 사례다. 특히 임직원이 직접 현장에 참여해 손을 보태며, 나눔을 일방적 지원이 아닌 지역과 함께 걷는 동행의 의미로 확장해왔다.

미래 세대를 향한 관심도 꾸준하다. 세종발전본부는 2020년부터 매년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기탁해왔으며,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시 청소년 비행 예방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 MOU'를 체결해 청소년 비행의 선제적 예방과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 역시 이어진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인 육영사업을 통해 교육청과 협력해 세종시 초등학교에는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

고, 중고등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하며 배움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 밖에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세종시와 '에너지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 MOU'를 맺어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돕고 있으며, 지역 대학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지원 교육 및 청년 창업 육성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사회 공헌 활동은 2021년 사회 공헌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3년 첫 전력 생산을 시작한 세종발전본부는 신형정중심복합도시의 에너지 자립을 책임져온 핵심 발전소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LNG 발전소로 평가받으며, 2016년 Asian Power Awards에서 '올해의 아시아 가스발전소 프로젝트 금상'을 수상했고, 2023년 전 호기 무고장 운전 달성 및 노사관계 우수 기업 인증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역량과 ESG 경영 성과를 입증해왔다. 세종발전본부는 앞으로도 전력 공급을 넘어 나눔으로 지역의 일상을 밝히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희망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 ♡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 나눔으로 완성합니다”


40년간 제조업을 이끌어온 기업가. 제품을 설계하고, 시장을 살피며 지구를 육십 바퀴나 돈 사람. 그러나 (주)힐링웨이 기중현 대표가 궁극적으로 설계하고 싶은 것은 제품이 아니라 ‘환경’이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종종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가 잠시 숨 고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소외된 이들과 보폭을 맞출 수 있는 사회. 그의 경영 철학은 결국 나눔 철학으로 이어졌다. 글강보라 사진이승재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짓는 공간의 미학

기중현 대표의 나눔은 단순히 지갑을 여는 행위를 넘어선다. 최근 그는 인천시 서구 청소년 정책에 기념비적 이정표를 세웠다. 청라국제도시에 건립될 ‘청라청소년센터’의 건축비 전액을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환경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공간’의 힘을 믿는다.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스마트 도서관과 공연장, 메이커 스페이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자유롭게 발산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창의적 문화 거점이다. 그곳에는 ‘환경이 아이를 키운다’는 그의 철학이 낳은 집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의 공간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8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인 ‘산곡-청소년 특화 도서관(가칭)’을 비롯해 2016년 ‘가좌청소년센터’ 건립 지원으로 서구 청소년 시설의 기틀을 닦았고, 2019년에는 ‘서구발달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전폭 지원하며 소외된 이들을 위한 배움의

기중현 대표는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이 다시 사람의 미래를 바꾼다고 믿는다. 그에게 건축은 한 사람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가장 정성스러운 설계다.’



인천1호
아너오피러스 회원
(주)힐링웨이 기중현대표

장을 열었다. 그의 공간 나눔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다지는 일이다. ‘힐링웨이’라는 이름처럼 사람이 머물고 치유받을 수 있는 자리를 선물하는 것, 이것이 기 대표가 나눔을 통해 끝내 닿고자 하는 방향이다.

25년을 품어온 꿈의 약속

“2000년 뉴욕의 한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아이들이 제약 없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결심했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요.”

폭설로 모든 일정이 멈췄던 날, 미팅이 취소된 시간에 우연히 방문한 그곳에서 기중현 대표는 한참을 서 있었다. 농구를 하는 아이들, 스피커를 연결해 춤을 추는 아이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를 표현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 낯설지만 어딘가 부러운 풍경이었다. 25년이 지난 지금, 청소년센터와 특화 도서관 등을 통한 기부 채납은 그날의 약속을 지키는 그만의 방식이 되었다.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되지만, 강물에 놓아두면 1m가 넘는 대어로 자란다고 하죠. 저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물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헤엄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항 속 물고기와 강물 속 물고기의 크기가 다르듯, 아이의 가능성 또한 자라는 터전이 결정한다는 믿음이다. 기중현 대표는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와 디자인 단계부터 세심히 챙겼다. 그가 짓고 싶었던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드넓은 ‘강물’이었기 때문이다.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기중현 대표.
청소년 시설 건립 지원을 통해 지역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리터짜리 그릇에 10리터를 부으면 결국 넘쳐서 버려질 뿐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채우는데 있지 않습니다. 넘치기 전에 기쁘게 비워서 사회라는 큰 강물에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14대 1의 현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

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지원했을 때만 해도 기중현 대표는 그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거드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다. 성인이 되어서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하루의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부모들, 직장을 포기하고, 사회적 관계를 접고, 서서히 아이 돌봄 안으로 삶이 스며들듯 함몰되어 가는 가족의 시간. 중증 장애인 돌봄에는 ‘졸업’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 퇴소를 앞둔 한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다.

“그동안의 돌봄에 감사를 전하며, ‘이제 우리가 빠져줘야 다른 아이들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며 아내를 달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죠.”

실제 센터 입소 경쟁률은 14대 1, 14명의 지원자 중에서 13명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집에는 다시 끝나지 않는 돌봄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기중현 대표는 그 숫자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

았다고 한다. 누군가의 자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기회를 밀어내는 구조가 아니라, 더 많은 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언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순간이었다.

품질 경영에서 공간 경영으로 확장된 나눔

1980년대 척박한 제조업 현장에서 출발한 기중현 대표는 (주)연우를 이끌며 화장품 포장재 국산화에 성공했고, 품질경영대회에서 철탐산업훈장을 받으며 ‘품질 경영의 전설’로 불렸다. 하지만 그는 “돈은 돈일 뿐,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성과의 정점에서 그는 사업의 무대를 제품에서 ‘공간’으로 옮겼다. (주)힐링웨이 설립을 통해 사람들이 머물면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즉 돈을 쌓는 대신 공간을 남기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그의 나눔 여정은 2016년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78호 가입을 시작으로 오픈러스(10억 원 약정) 인천 1호 가입이라는 기록으로 이어졌다. 이 길에는 부인 김여옥 여사(인천 아너 174호)가 기꺼이 동행하며 인천의 열세 번째 ‘부부 아너’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개인의 결단을 넘어 한 가정의 가치로 확장된 여정이었다.

제품을 완성하던 그의 품질 경영 철학은 이제 사람과 사회로 향한다. 채우는 성공에서 나누는 가치로, 제조의 시간에서 동행의 시간으로 삶의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이다. 그는 오늘도 믿는다. 돈은 사라져도 그가 만든 따뜻한 공간은 남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공간에서 자란 누군가가 또 다른 이의 손을 잡아줄 때 그동안 쌓아온 나눔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

이방인에서 나눔리더로 이어진 20년 동행

차별을 사명으로 바꾼 20년, 주정하·김순덕의 나눔 기록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곁을 지켜온 경북 예천군 가족센터 주정하 센터장과 행복한지보노인복지센터 김순덕 대표가 나란히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각자의 삶에서 마주한 차별과 한계를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극복하고, 이제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나눔의 동반자로 우뚝 섰다. 이번 나눔리더 가입은 오랜 세월 다져온 두 사람의 신뢰가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된 아름다운 결실이다. 글 강보라 사진 김기남



예천 복지 분야의 황금 듀오이며 나눔리더인 김순덕 대표(왼쪽)과 주정하 센터장(오른쪽)

노인복지관에서 싹튼 우정, 서로의 버팀목이 되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07년 예천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중국 지린성에서 이주한 주정하 센터장과 10년의 육아 끝에 첫 직장을 얻은 김순덕 대표는 서로에게 유일한 동갑내기 친구였다. 타지에서 시집은 이방인이라는 공통점과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위치는 서로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힘든 시절을 함께 건너온 전우이자 영혼의 단짝이 되었다.

“동년배가 없는 시골에서 이름만 불러줘도 반가운 친구였죠. 서러운 일이 생겨서 하소연하면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들어주는 ‘대나무 숲’ 같은 존재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 주정하 센터장

주정하 센터장은 아주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편견을 실력과 독심으로 넘어섰다.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한 공부는 박사과정까지 이어졌고, 이제는 다문화 가정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김순덕 대표 역시 연고 없는 예천에서 학연과 지연의 벽에 부딪혔지만, ‘나만의 방식대로 보람 있는 일을 해보자’는 다짐으로 노인복지 분야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일군 행복한지보노인복지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사명감으로 빛어낸 예천의 따뜻한 미래

주정하 센터장은 지난해 경북 안동 산불 피해 지원을 계기로 정기적 기부를 시작하며 나눔의 즐거움을 체감했다.

“돈을 썼는데도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느껴지는 ‘이상한 도파민’을 경험했죠.”

- 주정하 센터장



“90세, 100세가 되어서 ‘우리 그때 참 잘했다’고 회상하며 함께 웃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평소 존경하던 (주)신도물산 김점곤 대표(영주 아너 1호)의 기부 권유는 나눔리더 가입에 확신을 더했다. 이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20년을 함께한 친구였다.

“친구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기에 ‘그렇게 좋은 거면 내가 하겠다’고 했죠. 20년 지기가 권하는 것이니 믿고 따랐습니다.” - 김순덕 대표

세 아이의 엄마인 김순덕 대표는 “아이들에게 명품 가방보다 기부 증서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며 나눔에 동참했다. 나눔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였을 때 시작하는 것이라는 두 사람의 철학. 20년 전 낯선 땅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던 두 친구는 이제 나눔리더라는 이름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 ♡



파르나스호텔
‘희망의 크리스마스 트리’

아이들의 겨울을 포근하게, 나눔을 품은 아이베어

지난 1월 15일 파르나스호텔이 ‘희망의 크리스마스 트리’ 기부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희망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단순한 기부금 전달을 넘어 나눔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하며 파르나스호텔만의 독창적 사회 공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글이선희 사진파르나스호텔



2025년 희망의 크리스마스 트리 한정판 아이베어와 색연필, 스티커가 함께 담긴 전용 패키지 박스

23년간 지속해온 사회공헌 캠페인

‘희망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파르나스호텔이 23년간 지속해온 대표적 사회 공헌 캠페인으로 매년 전용 아이템을 개발·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한다. 2025년 12월 한 달간 아이베어(-Bear) 판매 금액 전액과 현물 기부액을 더해 8,004만

여 원이라는 역대 최고 모금액을 사랑의 열매에 기탁했다. 기부금은 사랑의열매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강남구 내 취약 계층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한편, 파르나스호텔이 2016년부터 사랑의열매에 기탁한 누적 기부액은 5억

5,386만여 원으로 오랜 시간 변치 않는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아이베어

희망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낙상홍 화병, 파르나스 스노볼 등 해마다 새로운 기부 아이템을 공개한다. 2025년 희망의 크



리스마스 트리 기부 아이템으로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시그너처 곰 인형인 아이베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새롭게 선보인 한정판 아이베어는 전용 패키지 박스에 스티커와 12색 색연필을 함께 담아 취향대로 직접 꾸밀 수 있는 특별한 재미를 더했다. 이는 어린이는 물론,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흥미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익일 택배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기부 접근성을 확대하며, 지역 제약 없이 간편하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기부참여유도한섬세한 기획

파르나스호텔은 기부 아이템 제작을 넘어 기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심한 기획을 곳곳에 반영했다. 호텔 로비 1층에 아이베어 포토 존을 마련해 이용객의 자발적 사진 촬영과 SNS 공유를 유도하며 자연스럽게 캠페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 스크린으로 '디지털 기부자의 벽'을 조성해 기부자 이름과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게시함으로써 기부의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도록 했다. 또한 포토 존과 디지털 기부자의 벽 인근에 아이베어 샘플과 기탁 서류를 비치해 기부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그 결과 전년 대비 호텔 이용객 기부금 비중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나눔은 또 다른 나눔으로

이번 기부 행사에 동참한 참여자 중 일부는 아이베어를 수령하는 대신 기부를 선택했다. 이에 파르나스호텔은 해당 수량에 추가 물량을 더해 2,860만 원 상당의 현물 기부를 진행했다. 기부된 아이베어와 색연필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전달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따뜻한 선물이 되었다. ❀



1 아이베어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포토 존 2 2025 희망의 크리스마스 트리 기부금을 전달한 파르나스호텔 여인창 대표이사(왼쪽) 3 기부자 이름과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디지털 기부자의 벽 4 전 연령층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베어

적은 혈액으로 정확한 측정
에스디바이오센서
'스탠다드 멘토'

정밀한 수치, 데이터로 설계하는 내일의 건강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스탠다드 멘토'는 적은 혈액으로도 정확한 측정을 구현한 개인용 혈당 측정기다. 독보적 정밀성과 신뢰도 높은 성능으로 세계시장에서 주목받으며 일상 속 혈당 관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글강은진 사진 에스디바이오센서



나눔과 손잡은 진단 기술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술이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글로벌 체외 진단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가 경기 사랑의 열매와 '사랑의 스탠다드 멘토' 착한소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용 혈당 측정기 '스탠다드 멘토'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해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사랑의열매 공익 연계 마케팅 '착한소비'의 일환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만성질환과 감염병 등 다양한 분야의 진단 제품을 개발해온 체외 진단 전문 기업으로, 스크리닝 검사부터 확진 검사까지 아우르는 진단 체계를 구축해왔다. 기술력으로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해온 기업이 이제는 나눔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확장하고 있는 셈이다. 2020년에 경기 사랑

의열매 나눔명문기업 8호로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이 25억 원에 이른다. 임직원이 함께 하는 1+1 정기 후원, 사랑 나눔 키트, 에이즈워크 등 다양한 ESG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협약 제품 스탠다드 멘토는 손끝 모세혈관의 혈액으로 혈당을 확인하는 개인용 혈당 측정기로, 당뇨병 환자에게는 일상 관리의 기본 도구다. 대한당뇨병학회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합병증 막는 골든 타임, 규칙적 혈당 측정의 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에너지를 얻으려면 음식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연료로 쓰여야 한다. 이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포도당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한 채 혈액 속에 남는다. 이것이 당뇨병의 시작이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눈과 콩팥은 물론 심장과 뇌에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당뇨 관리의 핵심은 혈액 속 포도당 수치인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있다.

혈당은 식사와 운동,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가끔 받는 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들이 집에서 매일 혈당을 측정하라고 권하는 이유다. 규칙적 측정으로 얻은 수치는 현재 식습관과 운동이 적절한지 보



지난해 8월에 진행된 경기 사랑의열매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사랑의 스탠다드 멘토' 착한소비 업무 협약식

여주는 객관적 지표가 된다. 특히 당뇨 초기부터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면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노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 몸을 살피는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 여기에 이웃을 향한 마음이 담긴 '착한소비'가 더해지면 그 건강한 에너지는 더욱 멀리 퍼져나간다. 나의 내일을 지키는 선택으로 나와 이웃의 삶을 건강하게 꽃피우는 길이다. 



내 몸을 위한 똑똑한 건강 파트너, 스탠다드 멘토

혈당 측정이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반복되는 채혈에 대한 부담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스탠다드 멘토 (STANDARD Mentor)는 단 0.3μL라는 아주 적은 양의 혈액 만으로도 측정이 가능한 개인용 혈당 측정기다. 필요한 혈액량이 적어 채혈 시 느끼는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일상 속 꾸준한 기록을 돕는다.

기술적 신뢰도 역시 탄탄하다. 저항값이 낮은 금 전극판을 적용해 측정값의 정확도를 높였고, 포도당에만 반응하는 특수 효소(GOD)를 사용해 음식물 등 간섭 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식전과 식후를 구분해 기록할 수 있는 '식사 마크' 기능은 자신의 혈당 패턴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 준다. 병원 방문 사이 일상에서 꾸준히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료 기기이자, 이름 그대로 믿음직한 '멘토'다.



에스디바이오센서
홈페이지



조정식아나운서의
반려견아봉이



프로 방송견 아봉이가 전하는 달콤한 나눔

경쾌한 목소리로 아침을 깨우는 남자
곁에는 늘 작은 존재가 함께한다.
조정식 아나운서의 반려견, 솜사탕처럼
폭신한 털이 매력적인 코통드 킬레아르
'아봉이'가 그 주인공이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켜지면 2시간 내내 의젓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프로 방송견.
KBS 라디오 <조정식의 FM대행진>
청취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아봉이에게는 이제 '착한펫'이라는 또
하나의 다정한 이름표가 더해졌다.

글 강보라 사진 조정식아나운서

방송체질 '프로방송견'과 함께하는 특별한 나눔

아봉이는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스타견이다. 보이는 라디오에 조정식이나 운서와 함께 출연할 때면 방송이 진행되는 내내 미동조차 없이 자리를 지킨다. 평소 딱딱한 바닥을 싫어해 아빠의 다리 위를 고집하는 아봉이가 마이크 앞에서 '프로'답게 집중하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청취자들은 "아봉이가 잘 보이게 조명을 낮춰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곤 하는데, 진행자가 어둡게 나오는 건 개의치 않는 청취자들의 유쾌한 요청은 아봉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조정식 아나운서는 이런 사랑을 아봉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특히 매체를 통해 접하는 거액의 기부 소식들로 인해 '기부는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것'이라 인식하기 쉬운 편견을 경계한다.

"주식을 자동 매수하듯, 나눔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 나눔을 일일이 챙길 여유가 없을 때 '착한펫'이라는 정기 기부 프로그램이 그 마음을 자동으로 이어주거든요. 아봉이와 함께하는 나눔이라 그 의미가 한층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큐 사인 전, 아빠와 한 컷

슬픔에서 피어난 아몬드봉봉의 달콤한 위로

2018년, 첫 반려견 '코리'를 떠나보낸 이별은 조정식 아나운서에게 뼈아픈 후회와 함께 소중한 교훈을 남겼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생명에게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 슬픔의 긴 터널을 지난 그에게 아봉이는 다시 마주한 봄날의 햇살과도 같았다. 코리가 남긴 가르침을 되새기듯, 그는 퇴근 후 옷을 갈아입거나 씻기 전에 아봉이와 눈을 맞추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하루의 안부를 묻는다.

하지만 아봉이와 나누는 행복이 깊어질수록 마음 한편에는 묵직한 부채감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유기견 봉사 현장에서 마주한 아이들에 대한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유기견 보호 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의 간절한 눈망울이 잔상처럼 오래 남았어요. 현실적으로 모두 데려와 키울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이 괴로웠죠."

그런 그에게 반려동물 정기 기부 프로그램인 착한펫은 부채감을 덜어준 소중한 통로가 되었다. 직접 곁을 지켜주지는 못해도 누군가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코리가 남긴 그리움은 아봉이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 착한펫을 통한 따뜻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떠난 존재가 남긴 마음은 그렇게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다정한 약속이 되었다. 🍀



이름 아봉이	품종 코통 드 툴레아르
나이 6세	입양일 2019년 12월 19일
좋아하는 것 산책 특기 라디오 생방송	



착한펫이란?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매월 2만 원 이상 참여하는 정기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전국 299마리의 반려동물이 나눔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와인터널의 붉은 향기부터 금강의 물빛다리까지

무지갯빛 봄날

영동

일곱 빛깔 설렘으로 물드는 찬란한 봄. 사과의 빨강과 감의 주황, 국악의 노랑과 산의 초록, 물의 파랑과 포도의 보라, 와인의 자주까지. 영동을 담은 색들이 봄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번진다. 흑백의 일상에 영동의 봄을 다정히 덧칠하는 순간, 지친 마음에도 다시 색이 오른다.

글강은진 사진한국관광공사,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DAY 1 월류봉 → 토종왕순대 → 과일나라테마공원 → 빈스커피

달이머무는 봉우리 월류봉

한천 팔경 가운데 으뜸인 '월류봉'은 '달이 머무는 봉우리'라는 뜻을 지녔다. 우암 송시열이 머물던 한천정사에서 이름이 유래한 한천 팔경은 월류봉 일대의 여덟 경승지를 이른다. 금강 상류 초강천을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서면 달빛과 물빛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진다. 인근에 호랑이 기운을 품은 천년 사찰 반야사가 자리해 여정을 운치 있게 만든다.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월류봉길 45
043-740-3205



켄살이 과일 향을 깨우는 오전 10시전후 추천



달이 뜨고, 달이 지는 해질 무렵이나 이른 새벽 추천



달콤한 과일의 성지 과일나라테마공원

영동이 이토록 풍요로운 과일의 고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의외로 많지 않다. 소백산맥 추풍령 자락의 큰 일교차 덕분에 이곳 과일들은 유난히 높은 당도와 짙은 향을 머금는다. 전국 제일의 포도부터 최고의 즙을 품은 자두, 해외로 수출하는 명품 배와 청와대 진상품이던 사과까지 그야말로 과일의 성지다. 이런 영동의 달콤한 맛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과일나라테마공원'이다. 영동 대표 5대 과일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는 체험 공간으로, 수확철에는 과일 따기와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다. 영동의 비옥한 토양이 빚어낸 결실을 즐긴 뒤, 제철 과일 한 상자를 품에 안고 돌아가는 여정은 그야말로 달콤한 힐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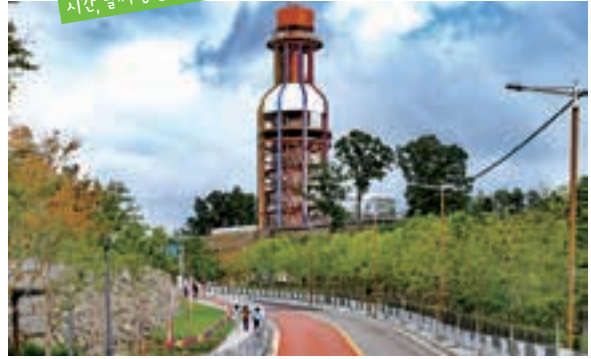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9-2 043-740-3657

포도 향에 취하고 분위기에 머무는 영동와인터널

영동읍 레인보우 힐링타운에 위치한 '영동와인터널'은 길이 420m에 달하는 이색적 체험 공간이다. 터널에 들어서면 은은한 와인 향과 함께 10가지 테마 존이 펼쳐진다. 고대부터 이어진 와인의 역사를 다룬 문화관부터 세계의 명주를 소개하는 세계 와인관까지, 와인의 탄생과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다. 포도 생산국의 테마 컬러로 꾸민 터널 내부와 고대 토굴의 흔적은 신비롭기 그지없다. 영동 와인의 특별함을 확인한 뒤 시음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어 초보자와 애호가 모두에게 매력적인 곳이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대한민국와인축제'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더욱 풍성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입장권은 현장 발매만 가능하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30 일대  043-740-3636~7



시간, 날씨 상관없이 몸익히기 좋은 곳



노을 지는 금강은 한 폭의 그림, 오후 4~6시 추천



강물 위를 걷는 해금의 선을 송호금강물빛다리

영동의 자연을 더 깊숙이 마주하고 싶다면 송호관광지로 발길을 옮겨보자. 이곳의 명물인 '송호금강물빛다리'는 289m 길이에 국악의 고장답게 해금을 형상화한 독창적 디자인으로 여행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금강 상류의 맑은 물빛과 100년 넘는 송림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수채화다. 다리를 건너면 양산 팔경의 비경을 품은 6km의 금강둘레길로 여정이 이어진다. 선녀가 내려와 목욕했다는 강선대와 용바위, 고즈넉한 여의정 등 숨은 전설을 따라 걸다 보면 일상의 시름은 어느새 강물 너머로 흩어진다.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일대  043-740-3228

영동군 용산면 '충북 2호 착한거리' 지정



영동군 용산면 일대가 나눔의 거리로 거듭났다. 충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12월 29일, 용산면 중심상가 내 33개 업소가 착한거리에 단체 가입함에 따라 이곳을 '충북 2호 착한거리'로 선포했다. 2018년 지정된 영동 황간면(1호)에 이어 영동군에서 탄생한 두 번째 사례다. 용산면사무소 앞에는 이를 기념하는 조형물이 설치됐으며, 상가 수익의 일부를 정기 기부하는 상인들의 뜻을 모아 지역 나눔 문화의 상징적 거점이 될 전망이다.

오감이 즐거운 영동 나들이의 미각을 책임지는 착한가게



“저는 착한가게로 시작해
나눔리더가 되었고,
우리 용산면은 ‘충북 2호
착한거리’로 선정되니
더없이 기쁘고 벅합니다.”

- 김순애 대표



토종왕순대

오랜 세월 용산면을 지켜온 ‘토종왕순대’는 지역 주민에게는 일상의 푸짐한 한 끼이자, 여행자에게는 든든함을 안겨주는 맛집이다. 국내산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오랜 시간 우려낸 육수에 순



대와 머릿고기를 넉넉히 담아서 낸다. 잡내 없이 맑고 깊은 국물은 첫술에 개운하고, 뒷맛은 묵직하며,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수육과 쫄깃한 순대는 29년 세월이 쌓인 내공을 증명한다. 특히 이 집의 숨은 공신은 직접 농사지는 재료로 만든 밀반찬이다. 배추와 무 등 맘 흘려 가꾼 농작물로 정성껏 담근 김치와 깍두기는 국밥의 풍미를 정점으로 끌어올린다. 따로국밥과 순대전골, 막창볶음까지 인심 넉넉한 한 상 차림은 이 집만의 놓칠 수 없는 매력이다. 김순애 대표

는 착한가게를 시작으로 매년 100만 원씩 7년째 기부를 이어온 나눔리더다. 자신이 어렵게 살아왔기에 더 이웃을 돕고 싶다는 그는 정직하게 땅을 일구고 음식을 만들듯 꾸준히 나눔을 실천한다. 이러한 진심은 주변 상인들에게도 전해져 용산면이 ‘충북 2호 착한거리’로 선정되는 밑거름이 됐다. 뺏속까지 뜨끈해지는 국밥 한 그릇처럼 그의 나눔도 오래도록 우리 사회를 데운다.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341
 043-743-1294



“새내기 사장이지만, 용산면 상인회 덕분에 착한가게로 첫발을 뗐습니다. 나눔으로 시작해 너무 든든합니다.”

-서련화대표

용산한우소머리국밥

용산면 초입에 있는 파란 간판 아래로 구수한 국물 향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 곳, ‘용산한우소머리국밥’이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곳의 대표 메뉴는 소머리국밥. 뽀얗게 우러난 국물은 담백하고, 한우 소머리의 깊은 맛이 은은하게 배어 있다. 특히 소머리수육은 머릿고기 특유의 잡내를 섬세하게 잡아낸 데다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식감이 일품이다. 고깃걸 따라 부드럽게 풀리면

서도 씹을수록 고소한 육즙이 번져 입안을 가득 채운다. 자극적이지 않아 더욱 오래 기억에 남는 맛이다. 메뉴는 소머리국밥을 필두로 소내장국밥, 소곱창전골, 간재미초무침 등이 있다. 상에 함께 오르는 잘 익은 깍두기와 갓 무쳐낸 겉절이 역시 한 그릇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등 공신이다. 서련화 대표는 최근 상인회와의 인연으로 착한가게에 동참하며 기분 좋은 나눔을 시작했다. 정성껏 끓여낸 뜨끈한 국물처럼 은근하지만



깊은 진심이, 이제 막 첫발을 뗀 이 집을 더욱 빛나게 한다.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382

☎ 043-743-4238





“지역사회를 돕는 착한가게의 취지에 공감해 주저 없이 동참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니까요.” -이두환 대표



빈스커피

옛 다방 문화가 익숙하던 용산면에 새로운 커피 문화를 심은 곳, '빈스커피'다. 시골에서 카페가 되겠느냐는 우려 속에서도 이두환 대표가 문을 연 이유는 확고하다. 자라나는 딸들과 지역 청년들에게도 도시 못지않은 세련된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믿음이었다. 정성껏 블렌딩한 원두의 깊은 풍미는 이 집의 기본이다. 여기에 대표가 직접 개발한 수제 시럽을 더한 시그너처 메뉴인 빈스

커피는 단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하다. 영동의 특화 자원인 일라이트를 활용한 일라이트 소금커피 역시 이곳만의 개성을 보여준다. 그에게 카페는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마주 앉는 공간이자, 지역과 호흡하는 자리다. 좋은 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듯, 그는 묵묵히 이웃 곁을 지키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

📍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329-1
☎ 010-4138-8420

“나누어주신 온기, 세상에 희망으로 퍼져나가도록”

62일간 쉬 없이 달려온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여정이 마침내 따뜻한 마침표를 찍었다. 경기 침체라는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사랑의온도탑은 나눔온도 113.9도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 글 이선희 사진 서범세

함께 지핀 나눔 불씨로 따스한 겨울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 전개해 총 5,124억 원을 모금했다. 이는 역대 희망나눔캠페인 사상 가장 많은 모금액이자 최초로 5,000억 원을 돌파한 기록이다. 또 사랑의온도탑 나눔온도는 지난 캠페인보다 이를 빠른 42일 만에 100도를 돌파, 최종 113.9도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걱정과 우려 속에서 출발한 희망2026나눔캠페인이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작은 나눔 불씨가 모여 어느 해보다 뜨거운 희망이 확산되었다.



희망2026나눔캠페인 폐막식에서 진행한 '대국민 감사 퍼포먼스'



1



2

1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폐막식에 함께한 이해성 홍보대사, 강원도 소방본부 이유미 기부자, 사랑의온도탑 디자인을 기획한 전주대학교 박예찬 학생 2 캠페인 경과보고 중인 황인식 사무총장

“성금 모금에 함께 해주시고 사랑의열매 배지를 달며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갈 희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희망2026나눔캠페인 폐막식 당일 SNS에 남긴 글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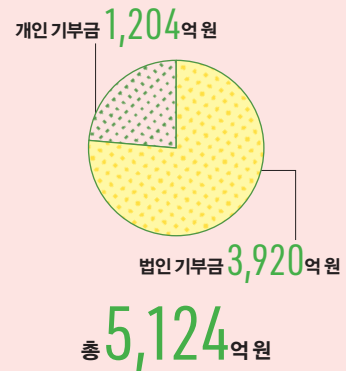
가장 필요한 곳에 구석구석 전달

지난 2월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진행했다. 폐막식에는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과 황인식 사무총장,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방송인 이해성 등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사랑의온도탑 디자인을 기획한 전주대학교 박예찬 학생과 기부자 대표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이유미 소방장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김병준 회장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이어진 어려운 한 해였음에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 캠페인 모금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서게 됐다”며 “행복을 더하는 기부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희망나눔캠페인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고, 전 세대의 자립과 성장을 뒷받침하며, 새로운 사회문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

* 사랑의열매 제11대 김병준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2월 5일자로 제12대 윤여준 회장이 취임했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나눔 기록



800억원

• 4대 금융그룹 기부금



10.1%

• 현물 기부 지난해 대비 증가



16BTC

• 두나무 가상자산(비트코인) 기부 약 21억 원 상당



41만명

• 카카오와 함께 한 연말 캠페인 참여자 수

열매모아 리워드 굿즈

“책상 위 작은 행복, 열매둥이와 함께하세요”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열매모아’에 참여하면 기부 금액에 따른 특별 리워드 굿즈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굿즈는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누구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에 열매둥이 디자인을 더했다. 책상 위에 자리한 귀염둥이를 덕분에 절로 웃음이 나오는 행복한 일상이 이어진다. 글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1만 원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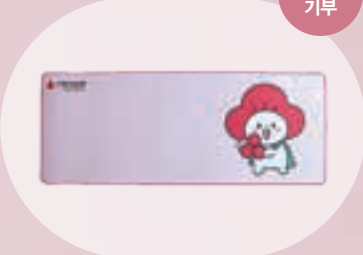
일주일 일정을 한눈에 체크 열매둥이 주간 메모지

한 주의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요일마다 각기 다른 표정의 귀여운 열매둥이가 담겨 있어 기록하는 즐거움도 더한다. 모니터 아래나 키보드 앞 등 책상의 좁은 곳에도 쏙 들어가는 슬림한 크기 역시 장점이다. 덕분에 그날의 할 일을 간편하게 메모하고 체크하며, 한 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업무능률 업! 기분도 업! 열매둥이 키보드 장패드

열매둥이가 사랑의열매를 소중히 안고 있는 귀여운 모습의 장패드는 넉넉한 길이라 키보드와 마우스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부드러운 소재에 꼼꼼한 테두리 마감 처리를 더해 장시간 업무나 학습에도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한다. 검은색과 분홍색 중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 나만의 개성 있는 책상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3만 원
기부



5만 원
기부



정리 필수템 충전과 수납을 동시에 열매둥이 펜꽂이 무선충전기

펜꽂이와 무선 충전 패드를 결합해 좁은 책상에서 사용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스마트폰을 가로와 세로 어떤 방향으로 거치해도 꺾임 없이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하며, 흔들림 없는 안정된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 후면의 넉넉한 수납공간에는 필기구뿐 아니라, 다양한 사무용품들을 한데 모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기부 참여하고 굿즈도 받는 클라우드펀딩 '열매모아'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열매모아'에 참여하면 기부 금액에 따라 열매둥이 주간 메모지 (1만 원), 키보드 장패드(3만 원), 펜꽂이 무선 충전기(5만 원)를 리워드 굿즈로 받을 수 있다. 작은 기부로 큰 변화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귀여운 열매둥이 굿즈도 소장하는 건 어떨까.



벌레를 막아주고 일상을 지켜주는 새 방충망

전남 순천 유일의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참샘마을. 30명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의 가장 큰 문제는 벌레다. 15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낡은 방충망 틈으로 모기, 파리, 나방은 물론 온갖 벌레들이 끝없이 들어와 이용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에 방충망을 교체해 30명의 일상과 안전을 지켜주고자 한다.



모금 기간 4월 30일까지
목표 금액 350만 원(방충망 교체 및 프레임 보수 비용)



식사공백이 학업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꿈학교는 북한 이탈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정서적 돌봄, 그리고 하루 세끼의 따뜻한 식사를 제공한다. 그러나 방학이 되면 식사 지원이 끊겨 아이들은 당장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에 처한다. 끼니가 불안해지면 공부를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따뜻한 식사가 방학 중에도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모금 기간 3월 31일까지
목표 금액 350만 원(방학 기간 중 1일 1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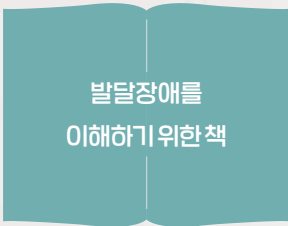
에어컨 한대, 세탁기 한대가 바꾸는 여름

자립 생활 체험훈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하루를 보내는 연습을 하며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기르는 곳이다. 푸른들의 체험훈에 있는 가전은 최대한 아껴 쓰고 고쳐 썼지만, 12년을 함께해온 에어컨과 세탁기는 사용 불가 상태에 이르렀다. 더위를 견뎌야 하는 괴로운 집에서 기본 권리를 지켜주는 집이 되기 위해선 많은 이의 정성 어린 손길이 필요하다. 🍓

모금 기간 4월 30일까지
목표 금액 350만 원(에어컨 1대, 세탁기 1대 구입비)

열매모아
바로가기





다름이 아닌 ‘답음’을 발견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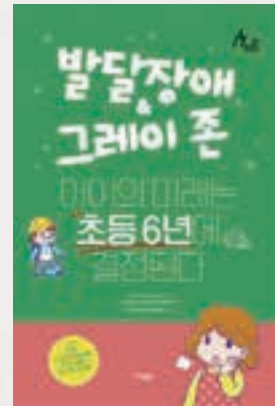
발달장애를 마주할 때 우리는 ‘나와 다른 존재’라는 선입견부터 갖곤 한다.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일은 그 다름 뒤에 숨은 보편적 답음을 발견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발달장애인 특화 도서관 담당자에게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책을 추천 받았다. 글 이선희 사진 각출판사

학교생활 중 마주할 33가지 상황과 99가지 대처법

<발달장애인 & 그레이존: 아이의 미래는 초등 6년에 결정된다>

● **추천 이유** “아이를 키우며 누구나 한 번쯤 맞닥뜨리는 불안감, ‘남들보다 성장 발달이 느린 것 같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다’는 그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책입니다. 하나의 고민에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아이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동을 폭넓게 바라보게 합니다. 작가의 바람처럼 이 책이 많은 부모와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성공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책 소개** 이 책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막막함을 느끼는 발달장애·경계선 지능 아이의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북이다. 아이가 학교생활 중 마주할 33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99가지 구체적인 대처법도 담았다. 아이의 미숙함을 이해하고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6년의 초등학교 생활을 부모와 아이가 신뢰 속에 헤쳐 나갈 명확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노우에 마사히코 감수
일본콘텐츠전문번역팀 옮김
이담북스



가나시로 냥코 지음
이윤정 옮김
마에카와 아사미 감수
마고북스

발달장애 당사자가 직접 말하는 문제 행동의 이유

<발달장애: 나에겐 불안 초조한 이유가 있어!>

● **추천 이유** “이 책은 발달장애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행동들 이면에는 아이의 불안과 초조감이 담겨 있음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차분히 전해줍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내 아이 혹은 발달장애인을 편견 없이 마주하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기꺼이 추천합니다.”

● **책 소개** 경증 자폐와 ADHD를 가진 아들 류타와 만화가 엄마 냥코씨. 엄마가 ‘그때 그 문제 행동’을 고집어 내어 질문하면 스무 살이 된 아들이 당시엔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과 생각, 행동을 되짚어보고 설명한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 행동 이면에 어떤 감정과 맥락이 자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려준다. 당사자의 솔직한 경험담을 통해 독자는 행동이 아닌 마음을 먼저 보게 된다.



이봉 루아지음
김현아 옮김
한울림스페셜

그래픽 노블로 보는 자폐 아들과 아버지의 감동 실화

<자폐 아들과 아버지의 작은 승리>

○추천 이유 “전문적 이론이나 딱딱한 용어 대신, 자폐 아들을 키우며 마주하는 아버지의 생생한 분투기를 만화 형식으로 담아냈습니다. 덕분에 자폐라는 무거운 주제를 한결 가볍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으며, 책장을 넘길수록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에 몰입하게 됩니다. 아들을 위해 쏟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따라가다 보면, 거창한 성취보다 값진 일상 속 ‘작은 승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책 소개 아들의 자폐 진단으로 ‘완벽한 아들’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상실의 슬픔에 빠진 저자는 방황 끝에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되는 아픔을 겪는다.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난 후에야 비로소 부모가 믿어주는 만큼 행복해지는 아이를 발견한다. 저자는 아들의 자폐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자폐 아들과 함께 장애를 안고도 세상에 적응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천천히 키워나간다.

천재적 동물학자이자 자폐인이 쓴 자전적 이야기

<어느 자폐인 이야기>

○추천 이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자폐인의 행동과 말 뒤에 숨은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아낸 책입니다. 자폐를 ‘교정해야 할 이상행동’이 아닌 ‘세상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삶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발달장애라는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책 소개 자폐아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템플 그랜딘 박사의 첫 저서로, 자폐아를 연구하는 전문가와 자폐아를 가진 부모들의 오랜 필독서이다. 자폐인이 쓴 최초의 수기로 주목받은 이 책은 자폐아들의 남다른 유년 시절의 아픔과 고독, 내면에 가려진 공포와 극복의 세계를 차분하게 그려낸다. 일반인에게는 그동안 미지의 영역으로 굳게 닫혀 있던 자폐인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자폐를 이해하고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



템플 그랜딘 지음
박경희 옮김
김영사



발달장애인의 눈높이로 세상을 읽는 공간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시끄러운 도서관 발달장애인이 마음껏 움직이고 소리 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특화 도서관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인지·촉감·소리 도구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육서와 일반 주민용 교양 도서를 함께 구비하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독서 문화를 지향한다.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전국3760호 (충북96호)

함점식 미소가든펜션 대표

“저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면 충분합니다.”



전국3778호 (충북97호)

강민주 강민주의 들밥 대표

“맛있는 음식은 몸을 채우지만, 따뜻한 나눔은 마음을 채웁니다.”



전국3779호 (충북98호)

정진욱 M15X 건설식당 대표

“밥 한 상의 따뜻함을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전국3780호 (서울470호)

고윤대 세기콘트룰 회장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의 기본권인 의식주와 학습권,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3797호 (대전127호)

송인석 대전청과주식회사 대표

“서로의 곁을 지키는 나눔으로 더 따뜻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전국3798호 (대전128호)

김숙현 임페리얼트레이닝 대표

“아주 작은 선택,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전국3812호 (경남169호)

정주영 (주)코스메디슨 대표이사

“가치 있는 나눔이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내일을 밝힙니다.”



전국3813호 (경남170호)

구재본 (주)한성목재 회장

“평소생활 지론-자신감은 절반의 승리다. 오만은 절대 금물이다. 자신을 책임질 사람은 자신뿐이다.”



전국3814호 (경남171호)

김재환 오토텍 대표

“福 지어서 福받자.”



전국3817호 (경북195호)

박종우 강산농장 대표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자 기쁨입니다.”



전국3820호 (경북196호)

우성호 웅비건설(주) 대표

“나눔의 전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전국3858호 (경북198호)

우영명 백산아그로 대표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전국3860호 (전북111호)

안민경

“작은 나눔, 큰 온기.”



전국3862호 (전북113호)

안지훈

“매사에 감사하라!”



전국3865호 (부산385호)

김미경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3874호 (대구276호)

이예지

“누군가를 잡아줄 수 있는 손이 있기를, 서로의 손을 잡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3877호 (경남174호)

故 김미경 전 김해주석초등학교 교사
“세상의 모든 아이는 축복 속에 피어날 꽃입니다.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마다, 저의 작은 나눔이 단단한 디딤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국3882호 (서울476호)

장현미

“나눔은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전국3861호 (전북112호)

안지우

“함께 나누며 따뜻한 세상을 꿈꿉니다.”



전국3863호 (전북114호)

조계식 (주)마한·호텔 은파팰리스 대표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전국3873호 (서울475호)

박성준 특허법인 지평 변리사
“나눔은 더하기입니다.”



전국3876호 (경남173호)

이춘자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와 든든한 힘이 되길 바라며, 서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국3878호 (경남175호)

김중환 청량사 청명법사

“나눔과 베품은 항상 행복이고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전국3883호 (대구277호)

故 신을용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나누는 삶을 살자.”



나눔명문기업

나눔문화를 이끌어가며 기업 사회 공헌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대표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



전국 648호 (서울 99호)

(주)바로크레디트대부



“ 기업의 사회 환원은 당연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나눔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김충호 대표

”



전국 649호 (부산 85호)

은산수출포장(주)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건 사명입니다.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통해 부산 전체 기업이 함께하는 나눔문화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 양재생 회장

”



전국 650호 (인천 60호)

공항철도(주)



“ 임직원들의 진심 어린 손길이 모여 값진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따뜻한 나눔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 박대수 사장

”



전국 651호 (부산 86호)

(주)토탈소프트뱅크



“ 기부는 우리 회사와 저 개인이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부산의 사회 문제 해결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최장수 대표이사

”



전국 652호 (부산 87호)

한국산전(주)



“ 직원과 함께 나눔을 실천해온 기업 문화속에서 나눔명문기업 가입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입을 계기로 취약 계층을 위한 현장 중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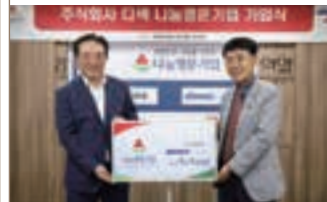
- 이현곤 대표이사

”



전국 653호 (부산 88호)

(주)디섹



“ 기업의 성장은 사회와 함께할 때 지속 가능하다는 신념 아래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해나겠습니다.

- 윤석용 대표이사

”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합니다”

 전국 654호(경기북부 23호)

(주)테프



“
우리 주변의 다양한 영역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고 나눔에
동참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영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태훈 대표
”

 전국 655호(경남 30호)

(주)성신RST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우리
기업이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회 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지역 주민의 삶에
행복과 희망을 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계출 대표
”

 전국 656호(경남 31호)


HSG중공업(주)



“
사회적 재난 속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이웃에게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나눔명문기업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기 대표
”

 전국 657호(경남 32호)

범한메카텍(주)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가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김성수 대표
”

 전국 658호(서울 100호)

(주)오토젠



“
창립 50주년을 맞아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지속적 나눔으로 이웃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 조홍신 대표
”

 전국 660호(서울 102호)

**의료법인 참여원의료재단
성북참요양병원**



“
환자 중심의 진료로 신뢰에 보답하고,
진심어린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김옥희 이사장
”



중앙회

'모두의 공모' 역량 강화 힐링캠프 개최, 소규모 비영리단체 성장에 초점



사랑의열매가 지난 1월 30~31일 '모두의 공모' 역량 강화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모두의 공모는 기존 공모 사업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소규모 비영리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해 성장을 돕는 인큐베이팅 사업이다. 참여 기관 57개소에 매월 전문가 코칭, 실무 정보 안내 등 다각도의 성장 인프라가 제공된다. 그중 40개소에는 최장 3년간 연간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40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역량 강화, 종사자의 심리 정서 회복,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교육과 네트워킹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은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소규모 기관들이 사업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회

설맞이 명절 지원사업 배분금 전달, 20만 4,000여 명에 154억 원 지원



사랑의열매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지원사업 배분금을 전달했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150억 원에서 약 4억 원 증액된 154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취약 계층 및 고립 가구,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위기 가정 등 20만 4,000여 명이다. 사랑의열매는 매년 설과 추석에 명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설에는 '설맞이 취약 계층 복꾸러미 나눔', '설 명절 건강 먹거리 키트 지원' 등 160개 세부 사업을 통해 전국 2,129개 배분 협력 기관의 협조를 받아 명절 특식과 식료품, 생필품,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만들기에 힘을 보탤다. 사랑의열매 윤여준 회장은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 고단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이웃에게 이번 지원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설 명절맞아 서울시 취약 계층에 4억 9,700만 원 지원



서울 사랑의열매가 설 명절을 맞아 취약 계층을 위해 총 4억 9,700만 원을 지원했다. 배분금은 5개 협회를 통해 명절 음식과 물품 꾸러미 지원 등 명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썼으며,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약 2만 명에게 전달됐다. 또한 서울 사랑의열매는 봉사자와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배분금을 전달하고, 명절 행사에 참여했다.

(주)폴리오, 홀리데이 에디션 판매 수익금 기부



(주)폴리오(공동대표 윤가람·이흥직)가 착한소비 캠페인 협약의 일환으로 한정판 '홀리데이 에디션'을 출시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한 성금 2,019만 원을 기부했다. 제품 한 개가 판매될 때마다 1만 원씩 적립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홀리데이 에디션은 완판을 기록했다.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

故 이공휘 어르신, 나눔리더 가입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후원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인故 이공휘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기 열흘 전, 부산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기부금 5,000만 원은 해운대구 관내 저소득 청소년 1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故 이공휘 어르신은 어린 시절 겪은 전쟁 탓에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경험을 나누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W아너 회원, 설 명절 미니 차례상 나눔



부산 여성 아너 회원 모임인 부산W아너(회장 변희자)가 설 명절을 맞아 미니 차례상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회원들은 함께 모은 성금 2,500만 원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직접 물품을 포장해 서구·동래구·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의 저소득 가정 500가구에 전달했다. 변희자 회장은 "앞으로도 주변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대구

2026년 설 명절 지원사업
배분금 전달

대구 사랑의열매가 지난 2월 2일, 2026년 설 명절 지원사업 배분금 전달식을 가졌다. 저소득 주민, 쪽방 거주민, 노숙인 쉼터 입소자 등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 1만 3,7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총 13억 7,000만 원 상당의 위문금 및 명절 물품을 전달했다. 대구 사랑의열매 신홍식 회장은 “현장 가까이에서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 미스코리아대구 진(眞) 김세은 씨,
나눔리더 가입

2025 미스코리아 대구 진 김세은 씨가 미스코리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고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대구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성금은 대구 지역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가입식에서 그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이웃사랑 성금 기탁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회장 조흥수)가 266개 회원사에서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 2억 6,8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2026년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흥수 회장은 “지역 발전의 주축을 담당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책임을 다하는 전문 건설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
인천 지역 아동 돌봄 지원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인천 지역의 아동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7,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9월 개최된 KLPGA 정규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참가한 선수들과 함께 한 행복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방과 후 아동 돌봄 기관과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등 지역사회의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계획이다.

광주

가평의료재단과 이사장 및 임직원, 기부 동참으로 이웃사랑 실천



가평의료재단과 김수영 이사장 및 임직원들이 3,741만 6,000원을 기탁했다. 재단과 이사장 개인, 임직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조성한 성금은 지역 내 취약 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가평의료재단은 나눔 명문기업으로, 김수영 이사장은 아너 회원으로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더베스트 착한일터 선정



전남대학교병원이 '더 베스트(The Best) 착한일터'에 선정됐다. 전남대학교병원은 2002년 창립된 직원 봉사 단체 학마을봉사회를 중심으로 현재 1,800여 명의 직원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 안전망을 든든히 지켜오고 있다. 지난해 모금한 1억 5,594만여 원의 기부금은 저소득층 의료비로 전달했으며, 누적 기부금은 25억 원을 넘어섰다.

대전

한국엔컴퍼니그룹, 이웃 돕기 성금 3억원 쾌척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이웃 돕기 성금 3억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성금은 그룹의 핵심 사업장이 위치한 대전시 취약 계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03년부터 매년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엔컴퍼니그룹의 누적 기부금은 약 164억 원에 달한다.

주식회사 예람, 인도 아동 교육센터 건립 지원



주식회사 예람(대표 강사돈)이 인도 취약 아동 교육 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인도 콜카타 지역에 건립할 예정인 교육 센터는 교육 접근성이 낮은 아동들에게 안정적 학습 공간과 기초 교육 기회를 제공해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

JW컨벤션(주), 노인 복지관 어르신 식사제공



울산의 대표 예식 컨벤션 센터인 JW컨벤션(주)(대표이사 최정우)가 울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소속 노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800인분의 식사를 제공했다. 최정우 대표이사는 “따뜻한 식사 한 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회,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회(회장 권은숙)가 울산 15호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성금 1,074만 5,000원은 울산시 관내 취약 계층 지원 등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권은숙 회장은 “앞으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영계소문 옛날통닭 전기복 대표, 아너 가입하며 나눔 실천



영계소문 옛날통닭 전기복 대표가 경기 385호 아너로 가입했다. 영계소문 옛날통닭 창업 이전에 사업 실패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전기복 대표는 노점에서 팔던 통닭을 사주던 손님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는 “그때 받은 도움을 이웃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제 삶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 ‘공적 항공 마일리지 함께 나눔’ 생필품 40여종 기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적 항공 마일리지 함께 나눔’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에 2,7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40여종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공무원의 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나눔으로 전환한 첫 사례로, 올해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 보유자와 향후 3년 이내 퇴직 예정자, 공적 항공 마일리지 보유 직원 등 공직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

경기북부

SB글로벌헬스케어, 취약 계층을 위한 마스크 23만 7,000장 기탁



SB글로벌헬스케어(대표 이승현)가 고양시·의정부시·포천시에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총 23만 7,000장을 기부했다. 2020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부한 마스크는 약 2,000만 장에 달한다. 2024년 연천군·포천시·남양주시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2025년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50만 장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금 전달



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지부장 이학필)가 여성 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자활 지원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학필 지부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앞으로도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2026년 설 명절 지원사업, 도내 취약 계층에 6억원 전달



강원 사랑의열매가 도내 취약 계층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6억 원을 배분했다. 한 가구당 5만 원씩 1만 가구에 5억 원을 지원하고, 980가구에 1억 원 상당의 명절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은 “이웃에게 작은 위로와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성금을 지역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시 나눔봉사단, 설 명절 행복박스 지원



춘천시 나눔봉사단(단장 홍경숙)이 설 명절을 맞아 만두·곰탕·김·떡국떡 등 일곱 가지 물품을 담은 행복박스 300개를 꾸렸다. 행복박스는 명절 기간 동안 도시락 배달 및 급식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전달했다. 춘천시 나눔봉사단은 2015년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 기간에 행복박스 지원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충북

서원대학교 이재영·김현주 부부 교수 가족,
온 가족이 함께 나눔 실천

서원대학교 이재영·김현주 부부 교수 가족이 이웃 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또다시 나눔에 동참했다. 이들 부부와 세 아들은 모두 나눔리더로 가입하고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나눔 행보는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재영 교수는 “이웃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태우,
음성군1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산업용 및 가정용 세제, 섬유 유연제 등을 제조해온 지역 향토 기업 (주)태우(대표 권상대)가 충북 11호이자 음성군 1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권상대 대표는 “기업의 성장은 사회의 관심과 신뢰 덕분”이라며 “받은 사랑을 환원하고, 지속적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충남

충남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돕기 성금 기탁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성금 3억 3,573만 7,250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교직원 급여 나눔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참여한 '희망나눔 동전모으기'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도내 저소득 학생들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교육 현장 곳곳에서 이어진 작은 실천이 모여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저소득 가구 6,000세대에
설명절 지원금 전달

충남 사랑의열매가 이웃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5개 시군을 통해 도내 저소득 가구 6,000세대에 총 6억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충남 사랑의열매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정기적 배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밖에도 긴급 지원,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

현대옥프랜차이즈, 10년째 이어온 따뜻한 나눔



현대옥프랜차이즈(대표 현성국)가 이웃 돕기 성금 1,500만 원을 기탁했다. 현대옥은 전북을 대표하는 외식 브랜드로서 2016년부터 매년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본점은 착한가게에도 가입하며 정기적 나눔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왔다. 이번 성금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북전주농협, 쌀 250포 기탁하며 온정 전달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이 명절을 앞두고 관내 복지시설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쌀 250포(800만 원 상당)를 기탁하며 온정을 전했다. 북전주농협 임직원뿐 아니라 조합원, 농협 및 하나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전남

무안하얀어린이집, 아나바다장터 수익금 기부



무안에 위치한 하얀어린이집(원장 이경순)이 원아,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한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한 아나바다 장터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나눔의 가치와 자원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행사였다. 이경순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나눔에 참여해 뜻깊다"고 전했다.

트리마제 순천1단지입주민, 나눔리더스클럽 동참



트리마제 순천 1단지가 전남 5호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 아파트 입주민 일동으로는 최초로 가입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게 됐다. 성금 1,055만 354원은 입주민 대표 주지현 씨가 개발한 아파트 소통 플랫폼에 희망 2026나눔캠페인 기부 계좌를 연결해 주민들의 참여로 마련했으며, 도내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비로 쓸 예정이다.

경북

안동학가산 마깍뚜기김치,
나눔명문기업 가입

영농조합법인 안동학가산 마깍뚜기김치(대표 우국한)가 경북 31호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아너 회원인 우국한 대표는 지역사회 복지 발전과 이웃 돕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우 대표는 “꾸준한 나눔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산농장 박종우대표,
아너 가입으로 나눔 실천

강산농장 박종우 대표가 경북 195호이자 청도군 11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평소 장학금 전달과 헌물 기부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온 박 대표는 (사)대한한돈협회 경북도 협의회 회장으로 지역 축산업 발전과 봉사 활동에도 앞장서왔으며, 국제라이온스클럽을 통한 사회 공헌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눔문화 확산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경남

이춘자 기부자
평생 모은 재산 기부하며 아너 가입

창원시에 거주하는 이춘자 기부자가 올해 첫 경남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함경남도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당시 가족과 이별한 뒤 모진 세월을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살아낸 이춘자 기부자는 인생을 되돌아보며 평생 어렵게 모은 소중한 재산을 이웃과 나누고자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 성금은 홀몸 어르신을 위한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6년 기획·신청사업 배분금 전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24개소 지원

경남 사랑의열매가 2026년 기획사업과 신청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 24개소에 10억 1,443만 원을 배분했다. 배분금 전달식 후에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안내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경남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남 지역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제주

제주 아너소사이어티클럽, 자립준비청년대학준비금 기탁



제주 아너소사이어티 클럽(회장 장성욱) 회원들이 4,700만 원을 기탁하며 자립준비청년 대학 준비금 지원사업에 힘을 보탤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보호 아동 대학 입학 준비금 300만 원에 아너 회원 한 명이 200만 원을 추가로 매칭해 도내 아동 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보호를 받다가 대학에 합격한 자립준비청년을 후원한다.

(주)한라지엔씨, 나눔명문기업 제주 21호 가입



(주)한라지엔씨(대표이사 김신성·김혜란)가 제주 21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주)한라지엔씨는 지난 2018년부터 8년 동안 연말이면 해당 연도에 맞춘 상정적 금액의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김혜란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세종

2026년 신청사업 배분금 전달식 및 사업수행 교육 진행



세종 사랑의열매가 2026년 신청사업 배분금 2억 7,982만 원을 전달하고, 사업 수행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신청사업에 선정된 13개 기관은 장애인·아동·청소년·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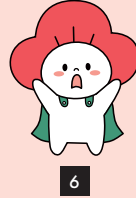
행복한사람들, 착한소비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행복한사람들(원장 김은유)이 착한 소비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행복한사람들은 매년 시설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복사용지 및 화장지)의 순수익금 1%와 장애인 근로자 선행의 결실인 '행복포도' 성금을 기부하고, 세종 사랑의열매는 이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 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열매둥이 이벤트

진짜 열매둥이를 찾아주세요



비슷해 보이는 여섯명의 열매둥이 중 진짜는 단 하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망토의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힌트: 진짜 열매둥이는 <사랑의열매>에 숨어 있습니다)

참여방법

QR코드를 스캔해 진짜 열매둥이라고 생각하는 번호를 적어 주세요

참여 기간 3월 20일까지 **당첨자 선물** 커피 기프트콘(5명)



이벤트 참여하기



독자엽서이벤트 당첨을 축하합니다!

차수정

강예숙

조성환

이희선

양서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랑의열매와 함께 소중한 진심을 전하세요

중앙회	02-6262-3000	서울지회	02-3144-0101
부산지회	051-790-1400	대구지회	053-667-0530
인천지회	032-456-3333	광주지회	062-222-3566
대전지회	042-347-5171	울산지회	052-270-9000
경기지회	031-220-7900	경기북부	031-906-4028
강원지회	033-244-1662	충북지회	043-238-9100
충남지회	041-635-0340	전북지회	063-282-0606
전남지회	061-902-6800	경북지회	054-650-2600
경남지회	055-270-6700	제주지회	064-755-9810
세종지회	044-863-5400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000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000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사랑의열매 나눔콜센터 080-890-1212

“작은 나눔이 우리 사회 마음의 온도를 높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수(SOO)태권도 송도국제관 원생들의 도복 끈으로 만든 사랑의열매입니다.
연말이 되면 원생들은 화려한 크리스마스트리 대신 자신들이 기부한 라면으로 트리를 만듭니다.

라면 트리가 높아질수록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의 온도도 높아집니다.

오늘도 원생들은 도복 끈을 단단히 매며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가짐도 함께 다집니다.